불교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

조계종 종평위, 8월 29일 입장문
김형석 관장 예배 장소 제공 '유감'
종교편향특위도 편향 행위 규탄
"공공기관, 중립 서비스 제공해야"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관 내에서 예배 등 종교행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잇따라 김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관장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서초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과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했고, 일주일 뒤에도 서울 종로의 한 교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한 사실이 알려져 종교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ROTC 행사 개최, 직원 의전 동원, 비공개 수장고 개방 등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는 8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공기관의 특정 종교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민족 교육의 장인 독립기념관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한 종평위는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를 편드는 행위는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는 9월 1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김형석 관장의 종교편향적 행위를 공유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18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독립운동가 추모 합동위령재'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을 통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래전부터 국가기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종교 편향적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종교계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두가 결코 좌시해선 안 될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보다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편향을 드러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정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직권 남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 △정부는 공공기관 내 종교 편향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앙종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불교계는 물론 국민 모두와 연대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 이하 불교인권위)도 '독립기념관장은 사죄하고 물러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9월 4일 대변인 성천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관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태고종은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나아가 해당 당사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추진본부, 종단에 '개선안' 제출하고 관심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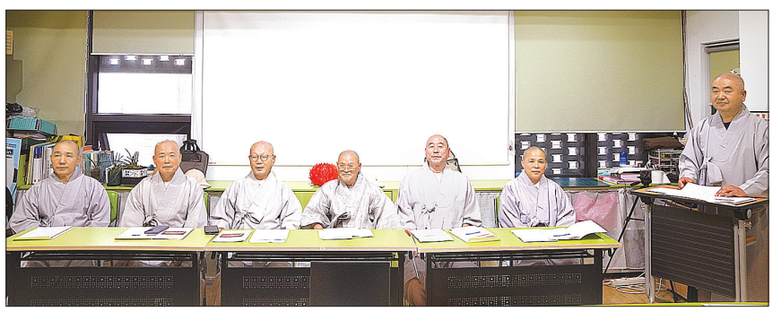
9월 3일, 총무원·중앙종회에 제출
"전국 대다수 스님 직선제 선호"
종단 차원 논의–관련 입법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직선제 개선안'을 전달하고 종단 차원의 논의와 관련 입법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개선안 제출 직후 서울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년 가까이 전국 스님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3종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 수원사 회주 세영 스님, 상적선원 선원장 해관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일문 스님, 마음정원 대표 선엽 스님, 전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이 참석했다.

추진본부는 "지난 1년간 전국의 스님들을 방문해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스님들이 현재의 간선제도보다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가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직선제 개선안'을 제출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일문 스님, 해관 스님, 지홍 스님, 현각 스님, 세영 스님, 선엽 스님, 광전 스님.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과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도 직선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 추진본부 설명이다. 추진본부가 직선제 추진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 성파 스님은 "참 좋은 일이다. 특히 선거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거나 화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고, 무여 스님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나라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잘 실현된다. 우리 종단도 민주주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에도 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종단 원로·중진 스님 다수가 직선제를 지지하며 직선제 선출 제도 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고 추진본부는 전했다.

이날 추진본부가 공개한 3종의 개선안은 총무원장 선거 시 금품수수를 차단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중덕 이상 스님들이 참여해 총무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투표 결과 30% 이상을 득표한 스님을 종정 스님이 추첨하는 '직선 추첨제', 종법으로 구성한 180명의 '후보 천거회의'가 수행이력, 경륜, 평판 등을 논의해 5인 이상의 후보를 천거하면 중덕 이상의 대중이 투표로 선출하는 '천거 직선제'가 그것이다.

추진본부는 "약 30년 만에 종헌과 선거법을 개정해 종단의 새로운 장을 열고 불교 중흥을 이루고자 한다"며 "9월 10일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선안을 검토, 심의해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까지 입법과정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본부는 9월 종회 이후 총무원장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스님을 면담하고 교구본사 주지 및 종회의원 등을 찾아 직선제 추진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종책특보단장에 성화·특보에 가섭 스님

진우 스님, 임명장 수여


성화 스님


가섭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보좌하고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과제를 지원할 종책특보단이 새롭게 구성됐다. 종책특보단장에는 성화 스님이, 종책특별보좌관에는 가섭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신임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전 총무원 총무부장)과 종책특별보좌관 가섭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성화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인 시절부터 함께 일해오면서 능숙하고 원만하게 종무를 처리했고, 종단 주요 난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며 "지난 3년간 종무에 매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 연장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종책특보단장으로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그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종도와 종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임들을 잘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성화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 모시고 당선인 대변인부터 기획실장, 총무부장으로 3년간 활동했다"며 "그런 경험을 살려 새로 임명된 부실장 스님들 및 특보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력 속에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조국 "0.8평 공간서 묵언·108배하며 성찰"

9월 4일, 진우 스님에 '감사'
진우 스님 "분별 업장 없애야"


사진=공동취재단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9월 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는 청원서를 보낸 바 있다.

진우 스님이 "고생했다"고 인사하자 조 전 대표는 "마음 써주신 덕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수용 생활 속 성찰하며 보낸 시간도 회고했다.

조 전 대표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 주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며 "야외운동 40분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0.8평 남짓한 공간에서 혼자 운동 삼아 수행 삼아 108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들과 교도관이 있지만 묵언 상태로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읽었다. 사실상 폐문수련과 같은 생활 속에서 항상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다"며 "저 역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제 허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우주 만법계와 먼지 한 톨까지 서로 연결돼 있어, 이를 하나하나 시비로 분별하려 들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평안한 마음이 지혜를 만들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치하는 이들도 지혜를 쌓으면 국민과 자신 모두에게 이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또 "고의 근원을 없애고 업장을 소멸하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 말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르게 나온다"며 "평안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여러번 좋은 말씀 해주셨다. 세상 밖에서도 (제가) 뭘 해야 할지 가르침 주시면 잘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